

## News

### 5대은행 가계대출 '마지노선' 육박... '더 센 규제' 온다

머니투데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 관리 목표인 연 5~6%에 육박... 은행들 자체적 DSR 적용 강화하기도... 개인별 DSR 규제 확대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 가계부채 동향 살펴보고 다음달 추가관리 대책 내놓을 것으로 보여...

### 당국, "금소법 위반여부 인지 못했으면 연말까지 시정 기회"...금융플랫폼, 위법해소 전까지 서비스 중단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 일부 업체들에 한해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어도 올 연말까지 자율조치 유도하기로... 25일 이후 위법소지 해소할 때까지 관련 서비스는 중단해야... 24일로 끝나는 금소법 계도기간 동안 총 4개의 가이드라인 마련...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금소법 위반 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 대응 예정

### 10월초 출범 토스뱅크, 파격적인 중리대출 예고...금융권 촉각

뉴스1

토스뱅크, 10월 초 출범일을 앞두고 막판 준비작업 한창...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에 나서기로 선언  
금융이력부족자, 자영업자, 급여소득자에 대한 CSS 모형을 각각 개발중... 자체 개발 신용평가모델 적용시 전체 차주 중 30%는 한 등급 이상 상향해 자신감 내비쳐...

### 금감원, 지난해 연기된 우리금융 종합검사 여부 '고민 중'

e대한경제

금감원, 임원 인사 이후 국감 일정 등을 고려해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종합검사 일정 정할 예정... 여러 차례 연기되어 이번에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라임부실펀드 제재 등에서 지적된 금융상품 선정절차 및 금융상품 판매 시스템 등 개선에 이어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사항도 면밀히 살필 예정

### 푸르덴셜생명, 중간배당 결정...KB금융 자금 여력 확보

아주경제

푸르덴셜생명, 24일 이사회 통해 1주당 6,657원 총 1,000억원 중간배당 결정... 배당전액은 푸르덴셜생명 지분 100% 보유한 KB금융에 제공 예정  
푸르덴셜생명 배당성향도 43.9%에서 70%로 향상... 실적 정체로 계열사 내 보험사 배당여력이 없는 점도 영향 미친 것으로 분석

### "동물은 물건 아니다"... 정치권, '반려동물 보험' 공약 봇물

조선비즈

21대 국회, 동물병원 진료 항목 표준화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 총 10건 발의된 상태, 진료비 사전고지제 등 진료비 투명화 조치가 주된 내용  
대선 주자들의 펫보험 공약도 줄이어...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제 추진 의지... 보험료 부담 완화로 펫보험 가입 촉진 기대

### 한투·키움도 '마이데이터' 장착...증권사 시장 선점 가속

데일리안

금융투자업, 마이데이터 부상하며 증권사들의 시장 선점 경쟁 치열... 한국투자증권 관련 서비스 연내 출시 예정  
키움증권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 TF 조직...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로 소비자 효용 증대 기대

### 2030 '빚투' 조준...증권사 대출도 옥죄다

한국경제

금융당국, 신용거래용자 관련 규제 강화방안 검토... 신용거래용자를 DSR에 포함하는 안을 비롯해 다양한 카드 고려 중  
제동 장치 없는 증권사 대출이 빚투 관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 지난해 말 19조 2,297억원인 신용거래용자 규모가 이달 25조 4,562억원으로 32% 증가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